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6  
2013. March

## 크루즈 · MICE · 의료관광이 세계관광 키워드다

한국 관광산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분야 중에서도 크루즈, MICE(Meeting, Incentive, Conversion, Exhibition), 의료관광은 양적 성장에 비해 그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게 관광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다



새롭게 태어난 **건오 씨클라우드 호텔**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S E A C L O U D H O T E L  
M A N A G E D B Y K U N O H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 6층 예약문의 : 051-933-4300  
팩스 : 051-933-4333 홈페이지 : [www.seacloudhotel.kr](http://www.seacloudhotel.kr) \* 프린트는 6층입니다.



##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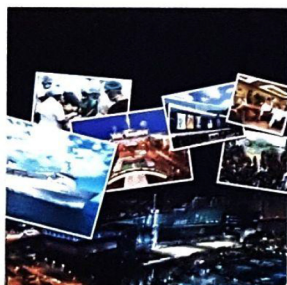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342-0289  
충북 043231-558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3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882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종규, 이태환,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3년 3월 1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60 FAX. (051)463-0004  
 E-mail. bt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_MICE산업 관련 이미지

- 05 2013년도 부산관광협회 총회
- 08 부산관광협회 신임회장 인터뷰
- 09 부산국악원-영화의전당 부산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상용화
- 10 부산 고부가가치 명품 관광 콘텐츠
- 11 2013 관광진흥계획 발표
- 12 산복도로, 역사성, 정체성 공간으로 조성
- 13 감천문화마을 지난 한해동인 관광객 10만명 찾았
- 14 부산의료관광 산업 해외 경쟁력 높인다
- 15 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1250만명 목표
- 16 부산시민공원 위대한 탄생 가시권에
- 17 부산북항대교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르네상스 시대연다
- 18 세계적 체류형 복합레저 동부산관광단지 공정률 58%
- 19 연안여객터미널 국립해양박물관 여객선운항
- 20 부산항 크루즈 156회 기항 / 부산북항재개발지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 21 영도 갈맷길, 한국대표 해안누리길로 선정
- 22 부산해운대 인근 새로운 관광인프라 기대
- 23 동해안 탐바오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어
- 24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1940년대로 복원
- 25 동해와 남해 분기점은 해운대 달맞이언덕
- 26 광안대교 LED 조명 1만6000개 설치
- 27 부산 해운대 세계적 브랜드 특급호텔 설립 러쉬
- 28 봄꽃 따라 떠나는 나들이
- 29 마음 통하는 사람과 청송 '주산지'로 봄 여행을 떠나보자
- 30 꽃구경을 하고 싶다면 전남 순천으로...
- 31 강남회 여행칼럼리스트 | 애 그리스 터키어
- 33 동양최대 철새도래지 을숙도 '생태관광' 인증
- 34 크루즈·MICE·의료가 세계관광 키워드다
- 36 국내외 여행표준약관(국외편)
- 38 칼럼 '손해식 편집위원 (부산, MICE산업 기지화해야)
- 39 칼럼 '동아대학교 임상택 교수 (부산관광공사 출범에 즈음하여)

## 2013년도 부산시 관광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 제23대 관광협회 회장에 광안동 '게스 후' 이태섭 대표선출



부산시 관광협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대의원 78명 중 76명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가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 의결사항

(제1호 의안) 2012년도 결산안 | 진행을 맞은 박성하 사무국장은 "협회 2012년도 결산안을 감사할 만한 후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의했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으며 결산안 내역은 별첨 자료로 보고했다.

(제2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했다.

(제3호 의안) 현 22대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3대 임원선출에서 게스 후 이태섭 대표가 회장에 선출됐다.

#### 선출임원

정관 제11조(임원)규정 근거에 의해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을 포함 30인 내외의 이사, 감사 1인 보선

정관 14조 제1항(임원의 선출)근거에 의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단 업종별 임원의 구성 비율은 전년도 업종별 분담금 부과액 비율에 따르되 동일 업종에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업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2013년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 관광진흥사업

-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중화권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문화체험 등 이용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역 여행업체 공동상품 활성화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비정기 도시 해외상품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 국제 크루즈 입항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 \*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외 해외관광상품 개발 : 해외관광매체 중심 발굴
- \* 외국인 친화 의료관광상품 개발 지원 : 인디안, 홍모뎀, 뽀뽀이
- 추진목표
- \* 공무원 관광지원 계발을 통한 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 의료산업협의회와 업무 제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증대

- 2. 부산 그랜드세일 행사 개최
  - 개요 :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쇼핑, 관광 소비 극대화를 통한 부산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장소 : 해운대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의 관광특구 및 특화지역 중심
  - 내용 : 홍보물 제작, 각종 매체 홍보 및 이벤트(공연 등) 행사, 쇼핑, 숙박, 식음료, 공연, 관광시설 등의 이용료 및 제품 특별할인, 사은품 증정 등

- 5. 부산세계물류축제 홍보사업
  - 부산 세계물류축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부산시의 계획에 따른

- 3.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실시
  -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 남해안의 지리적 여건과 소득증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크루즈 관광의 점진적인 증대 예상
    - \* 크루즈 관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모색과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 \* 2013부울경 방문의 해와 연계한 남해안 순환 크루즈 운항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도모
    - \*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포럼 개최
  - 추진목표
    - \*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크루즈 잠재 수요 창출
    - \*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여행업계 경영 활성화 도모

- 6. ECO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 특화된 ECO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국내관광객 유치 도모
  - 부산시의 계획에 따른

- 4. 체험 및 의료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 우수 체험관광상품 발굴, 민속체험프로그램 육성지원
    - 읍수도 에코센터 및 복원 습지, 칠세전망대 탐방코스
    - 도자기, 김치담그기, 뽕잠스터이 등
    - 다양한 테마별 체험관광상품 발굴,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개최 확대

- 7.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 부산광역시 주최 관광기념품 공모전 후원
  - 부산의 특화 관광기념품 개발 촉진

- 8. 부산관광사진 공모전 지원
  - 부산광역시 주최 관광사진 공모전 후원
  - 입상작품 관광홍보책자 및 포스터 자료 활용

- 9. 국내관광 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 참여
  - 동남권 관광협의회 운영 참여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참여

- 10. 산,학 협력사업
  - 관광관련학교 우수 졸업생 포상 사기 진작
  - 재학생 현장 배치 실습 추진

- 11. 협회 기능 및 운영쇄신
  - 협회위상 제고 및 회원 확대 주력
  - 효율적인 회원사 경영개선 도모
  - 협회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증대

## 회원관급증진사업

1. 부산공통상품 개발 운영 (추진예)
2. 관광인 가디 경이사업 실시
3. 2013여행이용 권이유지사업 실시
4. 항공권발권 교육 실시
5. 회원사 도무관련 직무교육
6.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조사업 완성화
7. 회원사 권이모듬을 위한 광고개제
8. 여행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9. 관광숙박업 지원 강화
10.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
11. 업종별 위원회 교육사업 개발 육성지원
12. 관광진흥추진대회
13. 관광호텔 등급심사 업무
14. 회원사 각종 실무교육 지원
15. 여행공제회 운영
16. 유관기관 간담회 활성화
17. 회원친목 증진업무 도모
18. 회원사 업무편의 및 관광정보자료 보급업무
19. 대정부 건의활동 강화

## 홍보 및 출판사업

1. 국내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활동
2. 외국 매스미디어 픽업(PICK UP) 홍보활동 전개
3. 협회 홍보지 발간
4. 관광법규집 발간(보급)
5. 업무자료 제작
6. 관광홍보자료 입수 배포
7. 방송, 신문 등 매스미디어 홍보활동 강화

## 국제협력사업

1. 2013 부산국제관광전(BITF)개최
2. 해외관광실명회 및 홍보마케팅 활동전개
3. 국내외 개최 관광박람회 부산 홍보관 운영
4. 해외인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5. 부산-유쿠오카 "아시아 게이트웨이 2013 공동캠페인" 추진
6. 부산입항 크루즈 환영행사 개최
7. 남동 동북아 국제 크루즈 지원
8. 국제관광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9.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대 전략적 마케팅 활동 전개
10. 국제사메협회 친선교류회 개최
11. 국제사메간인 체선 확대
12. 국제사메협회 도시 시민교류방문단 유치사업 추진
13. 신규 국제항공노선 증설 지원 사업 추진

14. 외국의 국제관광진 및 관광발명의 지원
15. 국제관광기구와 협력체계 강화
16. 국제관광인사 교류 및 친선회 개최

##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1. 관광안내소 기능 활성화
  - 종합관광안내소 : 종합관광정보센터 기능
  - 외국인서비스센터 : 1230 관광안내전화 운영
  -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 국내선 관광안내소, 국제어게루 관광안내소,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부산역 관광안내소, 고승비즈 타미안 관광안내소, 부산종합관광안내소(남포동), 가가대교 관광안내소
2. 관광안내소의 업무기능 강화
  - 관광안내원 친절서비스 교육 등 소양교육 강화
  -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친절 · 친숙한 안내로 불편해소
  - 국내 · 외에서 관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터넷활용)
  - 수동적 · 소극적인안내기능에서 능동적 · 적극적인 안내기능으로 전환

## 교육연수사업

1. 회원사운영 각종 실무교육
2. 관광종사자 서비스 직무교육
3. 친절환대서비스 교육

## 유관단체협력사업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의의 업무협력체계 강화
2.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인보사업

1. 사회단체 관련 제도운동 참여
2. 이웃돕기 등 인보활동 전개

## 회의운영

1. 협회 기본회의 운영(대의원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운영)
2. 업종별위원회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4. 기타회의 운영

## 수익사업증대

1. 협회 수익사업 촉발 확대
2. 각종간행물 유료 광고·스폰서 확대유치
3. 회원사 업무지원 심미관대
4. 작가지급방문수수료
5.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철강금 및 기부금



외래 관광객 300만 시대를 본격 진입하면서 양적성장 못지 않게 질적 성장을 가져올 부산관광의 중추역할을 할 부산시 관광협회 제23대 신임 이태섭 회장을 만나 그 구상을 듣는다.

“외래 관광객 300만 시대, 양적·질적 동반성장하는 부산시 관광협회”

Q 제23대 부산시 관광협회 회장에 취임하신데 축하합니다. 먼저 관광협회 회장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A 여행과 관광은 오랜 시간이 축적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전통과 현대가 창조적으로 융화돼 문화적 고유성이 살아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관광산업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역사·문화·예술·스포츠·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결합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산업으로 그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Q 접목되어 있는 부산의 관광산업은 성장성 동력으로 발전시켜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이나 구상이 있다면...

A 관광산업은 우리관광인들이 접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복합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요구된다.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편히 쉬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품격있는 관광 인프라와 중개 지원화된 지역축제 등 이벤트 개발이 쉼어 된다. 따라서 회원사 여러분들이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면 우리 부산의 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다.

Q 300만 시대 갖는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해서

A 혁신적 창조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광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광의 가치를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산·하·관·민이 힘을 모아 관광산업 발전 비전 제시를 통한 시장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안 등을 제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자 신규

관광사업의 개시에도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

Q 부산관광사업 종사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 먼저, 그동안 부산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신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실제 접하게 되는 숙박, 음식, 안내, 쇼핑, 여행사, 공항, 교통 등 관광집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부산과 부산인에 대한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진 속에서도 회원여러분들이 고맙고 또한 이는 우리 관광인들이 접어야 할 여행사, 공항 등 관광집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부산과 부산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회원님들의 건승과 기정에 행복이 충만해 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회장 이태섭

김봉오 btljbusan@hanmail.net

부산국악원-영화의전당 부산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 상품화  
크루즈승객 위한 맞춤형 특별공연으로 외국단체 관광객유치



국립부산국악원과 영화의전당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표적인 문화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해외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부산국악원 및 영화의전당과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관광협회와 부산관광공사도 적극 동참해 부산의 문화관광 관련 민간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상호 협의의 결과로 부산국악원이 관련 예산 10억 원을 확보, 8일부터 해외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유산(Heritage of Korea)' 공연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시행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빼어난 건축 조형미에도 부산국제영화제(BIFF) 기간 외에는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들었던 영화의전당이 중화권 단체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온 3차원(3D) 입체 K-POP 스타 공연 영상물 제작과 매일 상영 체제 준비를 미루리던 것도 계기가 됐다. 그리고 K-POP 스타 영상물을 영화의전당에 특별 상영관을 마련해 매일 상영하기로 했으며 중화권 등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의전당 측은 또 중화권을 포함한 크루즈 이용 승객들을 위한 특별상영작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국악원의 중모제례악을 포함한 한국의 유산 공연은 서구권 크루즈 승객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공연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시는 또 부산국악원과 영화의전당, 여행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책도 마련했다. 2만 원으로 책정된 부산국악원의 한국의 유산 공연 관람료를 1만 원으로 반값 할인할 때 나머지 차액을 시가 보전하고, 할인된 1만 원의 관람료를 추가로 50%로 할인하면 시가 다시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등에 차액을 보전한다. 또 평당 7000원인 영화의전당 관람료도 20% 할인해 주고, 여행사 측에 차액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지난 20일 부산관광협회까지 포함하여 단체 및 기관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국악원 측은 금요일 정기공연 외에 1박 2일 크루즈 승객을 위한 일일 맞춤형 특별 공연에 대한 시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통문화와 첨단영상문화의 인적 동적 문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부산관광이 체류형 여행지로서의 부산의 매력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영 기자

## 부산 고부가가치 명품관광콘텐츠 30대 과제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외국인 선상 카지노, 세계 불꽃축제 등



부산관광발전을 위한 30가지 관광콘텐츠 과제가 선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명품관광 콘텐츠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고부가가치 융·복합형 관광콘텐츠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시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안은 해양관광 등 18개 관광유형을 설정하고 각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115개 과제 중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소개된 30개 과제는 부산관광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콘텐츠 과제에는 ▷해운대 공인리 해양레저복합지구 조성 ▷4계절 부산해양축제 집중 육성 ▷외국인 전용 크루즈 선상 카지노

▷해운대 해양 에듀투어 로드 조성 ▷세계 요트경기장 조성 및 요트 관광상품 개발 ▷기장 어촌체험 ▷부산 등대투어 루트 개발과 배후 관광지 조성 ▷해운대 해양문화아트 밸리 조성 ▷7대 해수욕장 테마화 등 해양관련 콘텐츠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권역별 명품거리습과 민세점 조성 ▷부산 브리지 불꽃축제 투어 ▷센텀 백스코 비즈니스 복합타운 조성 ▷센텀 한류테마·영화거리 조성 ▷울속도 에코스트림 생태체험과 낙동강·뱃목축제 ▷서면 뷰티타운 조성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콘텐츠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콘텐츠 30개 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중·장·단기 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 부산 2013 관광진흥계획 발표

크루즈 관광, 다양한 관광네트워크 활성화로 외국인관광객 300만시대연다

'부산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연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인 역대 최다인 261만4천여명. 지난 2011년 236만7천여 명에 비해 10.4%나 늘었다. 이는 크루즈 관광의 지속성장과 다양한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부산의 관광 위상이 높아진 결과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천114만여 명으로, 사상 첫 '1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시대가 열렸다. 부산시는 18일 관광하기 좋은 매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조성 비전으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한 2013 관광진흥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 △명품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 △관광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상공인 관광 활성화 여건 개선 △부산관광의 활력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부산·상하이 지매결연 20주

년 공동프로모션 전개 사업, 부산-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추진 등이 실시된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크루즈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옹호만 유람선 부두 활성화를 꾀한다.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을 위해 동부산관광단지 명품 개발, 옹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명품관광상품으로 부울경 관광테마 열차 운행과 템플스테이 체험관 운영 등이 계획돼 있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시행과 우수 숙박시설 '굿스테이' 지정 확대 등이 실시된다. 오는 8월 문을 여는 부산기장관 첼시아롯데와 내년 개장하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아웃렛 등은 소매판매 활성화 여건 개선사업으로 관광진흥위원회 운영과 저문단 구성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2013 부울경 방문의 해 맞아 관광협력 다짐

시·도별 경쟁력 있는 축제 활성화

2013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3개 시·도는 부울경 방문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치 지원 활동을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3개 시·도는 올해 방문의 해를 계기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기반 마련과 더불어 이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경쟁력 있는 축제를 활성화하고, 상호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주요 공항과 역은 물론 국내외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부울경 관광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개별 지자체 사업 울산은 이번 방문의 해를 통해 산업관광과 연계한 차별화된 신개념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공해도시에서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나 노후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특화 관광상품을 마련 중이다. 시는 맞춤형 생태한경투어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했다. 이는 태화강 중심의 5개 탐방코스로 이뤄진다.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을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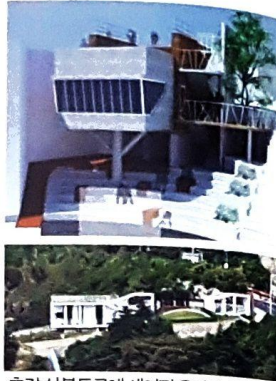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한복페스티벌과 울산 관광의 날, 전국 사진전 등을 새로 개최한다. 특히 국내외 기업체의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와 해외 마케팅 참가 등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을 쓸 계획이다. 3개 지역 중 문화재·축제 가장 많은 경남도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 분야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관광홍보 시설개선, 관광홍보 마케팅,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자족관광의량 등 5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관광홍보·마케팅과 관광홍보는 해외 특파원을 파견한 후 해외 인들을 초청해 평투어를 진행하고, 모노 유류 관광지 2곳에 관광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해 주요 기관·단체에 보낼 계획이다. 또한 상·일 3개교 학습소포럼 개최, 해외 관광홍보 설명회, 주한 외교사절 초청 행사 등을 개최해 도내 관광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3개 지역 관광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특화 축제의만 그치지 않고 동문원 신성장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 부산 산복도로, 역사성, 정체성 공간으로 조성

부산 찾는 관광객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시킬 것



▲산복도로에서 내려 본 부산항



초량 산복도로에 세어질 유치환 우체통 ▲

부산산복도로에 절경, 풍광을 제대로 즐길 전망공간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그 선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이 되살아나게 되면 산복도로는 부산시민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매력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준공된 부산 중구 중앙동 민주공원 주변 해안경관 조망공간역사의 디오라마, 산복도로 위에 있는 이곳에서면, 부산항 남항과 북항, 산신대부두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조망공간은 30m의 제1, 50m의 제2, 79m의 제3 조망공간으로 이뤄졌다. 1-2조망공간엔 45인치짜리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조선 중기-1952년, 1962년-현재의 부산항 모습을 보여준다. 동양화나 사진 등으로 이뤄진 영상이다. 부산항의 옛 모습을 보고 눈을 들어 앞을 보면 현재의 부산항이 펼쳐진다.

산이 많은 부산의 특성상 산복도로는 전망의 천국이다. 예전에 망양로라고 새 이름을 붙였을 정도다. 부산 동구는 초량동 827의 44 산복도로에 유치환 우체통이란 전망대를 지난 연말에 완공했다.

이 전망대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80㎡ 규모. 이 지역에 있는 경남여고 교장이었던 천마 유치환 선생을 연결시켜 스토리를 만들었다. 옥상에 전망대가 건물 안에서 전망카메라가 들어섰다. 건물 모습도 풍경을 보는 카메라 형상으로 설계됐다.

또 다른 산복도로인 사하구 감천2동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있는 2층 건물의 옥상엔 하늘마루 전망대가 있다. 2010년 10월 만들어졌다. 감천항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국내외 사진작가나 마니아들의 단골 투어 장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부산항이 부산 풍경의 진부는 아니다.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갈대가 사격이고 칠새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치는 낙동강, 을

숙도가 있다. 이곳의 낙조는 천하 절적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사하구 대동동 아이산에 전망대를 지었다. 지상 3층, 연면적 1309㎡인 이 전망대는 낙동강 하구의 맹금머리등·백합등·진우도 등 삼각주, 칠새 도리처럼 유명한 을숙도, 그리고 잠엄해 남해를 보여준다. 사하구는 또 대동물운대 서쪽 해안 절벽에 316m 길이의 낙조 전망대를 만든 데 이어 낙동강 하구둑-을숙도대교 사이 구간 1.67km에 산책로를 만들면서 저녁 노을을 감상할 전망대 3곳을 설치했다.

절경 감상 전망대는 동쪽에도 있다. 지난해 준공된 수영구의 수영강 강변 산책로 광장데크다. 광장데크는 수영강 산책로 중 수영교-직수영교 사이 구간에 길이 70-100m, 너비 10-15m 크기로 3곳이 조성됐다. 이곳엔 파고라와 벤치, 야간 경관조명, 음악 방송시설 등도 설치됐다. 이 광장데크 의강 건너편엔 APEC-루공원, 영화의전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의전당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못지않은 수려한 건물 외관이다. 세계 최대의 지붕, 화려한 조명 쇼를 벌이는 LED 화면 등을 갖춘 부산의 새 명물. 수영구 측은 '이곳에서 해가 지고 난 뒤 밤에 보는 영화의전당은 그 것만으로 한반의 영화'라고 말했다. 이곳에선 뉴욕이나 홍콩 못지않은 해운대 미린시티 미천루 아파트들의 화려한 야경도 즐길 수 있다. 해운대동 백섬의 'APEC누리마루하우스'도 하나의 전망대다.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 남해의 끝, 동해의 시작을 한자리서 볼 수 있다. 동해와 남해의 미묘한 색깔 차이를 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역사적 인물 재조명 사업이 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문화의 역량을 강화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서너 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 감천문화마을 지난 한해동안 '관광객 10만명이 찾았다'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에 지난 한해 9만8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2011년 2만 5천 명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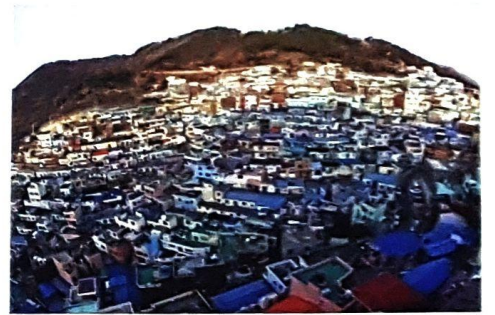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은 봉사단, 사업단, 기지단으로 구성된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에 참여해 마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은 당번을 정해 주말마다 관광객 안내, 주차 등을 담당하고, 사업단은 '감내 카페'와 같은 사회적 기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기지단은 마을신문을 만들어 마을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술인들도 찾아오고 싶은 감천문화마을을 만들기엔 한몫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기쁨두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5천만 원과 함께 구청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예술작품 10점(전집 프로젝트 3점·공간조형 4점·벽면조형 2점·평면회화 1점)을 설치 중이다. 현재 6점을 완료했고 나머지 4점은 올해 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작품과 더불어 총 27점의 미술작품이 마을에 전시되는 셈이다.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총 44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사하구청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운영과 먹거리 판매, 특

산물 개발에 몰두 했다. 또 천덕수 옛우물을 복원하고 생활박물관 17개와 작은미술관 4개를 조성해 문화마을의 가치를 높였다. 그 결과 2012 아시아도시경관상, 2012 도시브랜드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계속 이어가면서 감천문화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기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수익형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 10만 관광객 시대를 연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 용두산에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된다

용두산 공원에 영화체험박물관이 건립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영화체험박물관 사업은 민간투자유치(BT)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을 마무리한 후 연내 착공 입장을 밝혔다. 완공시기는 2015년 4-5월이다.

영화체험박물관은 용두산공원 입구 부지 4천360㎡에, 연면적 1만 1천252㎡(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총 331억 원을 들여 짓고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된다.

박물관에는 영화의 역사와 미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영화장면 재현시설, 촬영체험실, 동작 캡처 체험실, 4D 영화관, 교육·강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영화체험박물관은 영화의 역사와 제작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로 부산의 대표적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의료관광산업 해외 경쟁력 높인다

의료관광산업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러시아, 일본, 중국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의료관광산업 해외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우선 극동러시아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지자체 중 최초로 이달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시내 변화기에 부산 선진 의료기술과 시설의 우수성, 부산의 관광지를 알리는 초대형 광고탑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시설물에 5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 영상물 방영, 옥내·외 광고물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또 보건복지부 주관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의료기술, 인프라, 마케팅 등 지역의 대표 핵심 의료기술을 발굴해 해외환자 유치등록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비 4억원을 확보해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을 육성해 의료관광 인프라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바운드로 아웃바운드전략으로 중앙아시아 등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관계자를 부산으로 초청해 부산의 의료와 관광을 체험하는 팸 투어를 진행한다.

6월에는 지역 우수 의료기관과 관계자로 해외방문단을 구성, 중국과 베트남의 현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부산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해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9월께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열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과 의료관광 전시회 특화사업 등을 통해 미래 블루오션사업인 세계 의료관광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메디컬 크루즈' 사업준비단 발족

내년초 국비지원 등 본격화, 병원船 건조, 사업준비단 발족 산학 논의도

메디컬 크루즈는 의료관광과 크루즈선 여행을 합친 것으로, 크루즈선을 타면서 성형수술 등 시술을 받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 항구에 도착해 관광을 겸해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크루즈선과 다지탈병원의 결합인 셈이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5일 오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사업설명회 및 세미나를 겸해 메디컬 크루즈 기반 웨더서(MCC) 준비단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MCC 준비단 주관대학인 부산대, 참여 대학인 한국해양대와 부경대 교수진 10명,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 ICT 업체 등 관계자 10여 명, 한국 다지탈병원 수술사업협동조합 이인화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MCC 준비단은 이날 발족식에서 내년 초부터 메디컬 크루즈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부산발전연구원(BDI)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MCC 준비단은 메디컬 크루즈 성격상 부산지역 의료진 등 전문가를 더욱 많이 섭외

할 예정이다.

MCC 준비단 백운주 교수(부산대 컴퓨터공학과)는 "크루즈, 관광 레저, 조선 등 메디컬 크루즈 자체가 지닌 지역 산업 연관 효과와 부가가치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메디컬 크루즈 선박은 기존 크루즈선 개조보다는 새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MCC 준비단 관계자는 "부산의 지정학적 이점 등으로 올해 크루즈선 120척이 13만 명을 싣고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크루즈선사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도 늘고 있다. 메디컬 크루즈까지 쓰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치한 의료관광객은 10만 명, 실적은 2억 달러에 달했다. 업계와 학계는 차별화된 경쟁 전략이 필요하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 시장을 겨냥한 메디컬 크루즈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지 객원기자

## 세계경제포럼(WEF) 평가한 한국관광산업 경쟁력은 25위

국이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관광산업 국제 경쟁력 순위에서 25위에 자리했다.

WEF가 세계 1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 및 관광산업 경쟁력 2013' 평가 결과, 한국은 2011년 32위에서 7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6위다. 세부 분야별로는 여행 및 관광 관련 규제 체계에서 38위, 사업환경과 인프라에서 17위, 인적·자연적·문화적 자원 분야에서 20위에 각각 랭크됐다.

싱가포르(전체 10위), 호주(11위), 뉴질랜드(12위), 일본(14위), 홍콩(15위)은 아시아·태평양 순위 1~5위를 차지하며 한국보다 앞섰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10위, 전체 45위에 머물렀다.

일본이 2년 전의 전체 22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전체 12위는 스위스와 독일이 차지했다.

다보스 포럼 주관단체로 잘 알려진 WEF는 각국 정부의 관광 정책, 환경, 안전성, 문화유산 등 총 14개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 한국관광공사 올해 외국인 관광객 1,250만명 목표

의료·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육성 방침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1천7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경우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1천 250만명, 관광수입은 11% 증가한 156억달러(한화 약 16조5천억원)로 잡았다. 의료 관광객 유치는 20만명, 국제회의 개최는 세계 5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게 목표다.

관광공사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럽, 미국인들의 유치를 늘리고 의료·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도 육성할 방침이다.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중저가 시설을 늘리고 체험숙박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부문 관광호텔편드를 조성해 관련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공사는 2014년 5월부터 두달간 실시되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기업인 중국 임웨이사의 인센티브 여행 목적으로 한국의 여수, 부산,

제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임웨이는 그간 호주, 대만, 미국 등에 1만명 내외의 인센티브 여행단을 파견했다. 임웨이 우수 판매상과 가족을 포함해 총 2만5천명에 달하는 관광단은 크루즈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사측은 특히 중국 임웨이측 관계자가 수차례 여수, 부산, 제주를 사전 답사했고 그 과정에서 삼고초려 끝에 단독 여행지로 낙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웨이 방한단의 직접소비 지출은 4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72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예약 취소율까지 고려하면 동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1천400만명까지 가능하며, 숙식 등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관광인프라 편드는 사업들을 있어서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중화권 관광객수, 작년 일본 추월

외국인 관광객 261만여명중 72만여명 찾아, 전체 27.5% 차지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중국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의 수가 처음으로 일본 관광객 수를 앞질렀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59만501명) > 대만(2만18694명) > 홍콩(2만502명) 등 중화권 관광객은 모두 71만6887명으로 일본인 관광객(60만1684명)을 추월했다. 중화권 관광객이 일본인 관광객 숫자를 추월한 것은 관광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화권 관광객은 지난해 부산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261만4221명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200여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59만5천여 명으로 증했으며,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 관광객도 2008년 2만여 명에 그쳤던 것이 늘었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중국인들이 외국 관광에 적극적이며, 자연스레 사의적으로 가깝고 한류로 친숙한 한국에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연세 현상과 속도 등 한류 열풍의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다.



# 부산시민공원 위대한 탄생 가시권에

서울 여의도공원 두배 면적의 숲 갖추게 돼, 올해말 완공



10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곳에 부산시민공원 조성이 한창이다. 지난 2011년 8월 일제 강점기 때는 경마장, 625전쟁 때부터는 미군 하리아 부대가 주둔했던 자리, 52만16천278㎡ 광활한 땅에 과거를 싹싹 위기 위해 숨 쉴 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미군부대의 수많은 시설 가운데 막사와 극장, 학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했다. 손길이 닿지 않은 동안 오염됐던 땅을 파내 일일이 정화하는 작업도 마쳤다. 나무 수심만 그루를 심기 위해 40만여의 흙을 들여와 땅을 다지는 성토작업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전체 공정률은 벌써 43%를 넘어섰다.

부산시민공원은 빠른 공사 진척으로 올해말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2014년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그 기간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품에 명품공원을 안기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부산시 시민공원조성사업단은 이달부터 조경공사와 침탄

통신인프라 구축, 역사관 조성 등 주요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 그 중 조경공사는 공원 조성의 핵심. 소나무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뽕나무 등 93종, 50만2천826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모두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나무들 가운데 수령이 100년에 가깝고, 그루터기 지름이 100㎝에 달하는 나무 662그루는 보존한다. 2014년 조경공사를 마치면 부산시민공원은 서울 여의도공원 두 배 면적의 숲을 갖춘다. 부산시민공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부천천과 전포천도 복원하고 호수 3개, 잔디광장, 역사박물관, 극장 등도 세운다. 일제시대 만든 경마장 발매관 등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기존 건축물 23개 등은 보존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U파크 공사를 시작해 내년 10월 완공된다.

근, 현대사 100년의 아픔을 딛고 새 역사의 문을 열 부산시민공원. 그 위대한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김대현 객원기자

# 부산북항대교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르네상스시대연다

영도구 남항동-남구 감만동 연결, 세계적 명품 해안순환도로, 내년 4월 마무리



북항대교는 영도구 남항동-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총 길이 3천331m, 너비 18.6-25.6m(왕복 6차로) 규모의 강합성 사장교, 국내 사장교 가운데 인천대교 다음으로 길다. 강철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해 내구성을 높여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순간풍속 60퍼 세크 초특급 태풍이 불어닥쳐도 끄떡없다. 여기에 8만급 이상 대형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다 수면에서 교량까지의 높이를 60m로 설계했다. 통과높이 35m인 광안대교보다 높다. 160개의 케이블이 교량 상판을 잡아주는 190m 주탑의 디자인도 이를 고려해 다이아몬드형이다.

내년 4월, 북항대교 개통을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20년 동안 추진해오던 해안순환도로로 구축사업의 대장정은 마무리된다. 해안순환도로 완공의 의미는 자못 크다. 단순한 도로가 아닌 뛰어난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부산의 역동적인, 해양도시, 이미지를 드높이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부산에 걸맞은 세계적인 해안관광상품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아름다운 부산의 해안순환도로를 따라 관광할 날이 머지않다.

아름다운 다리들은 도시를 풍요롭게 만든다. 도시는 문화적 역량을 모

아 훌륭한 다리들을 건설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시드니의 허버브리지, 런던의 타워 브릿지, 파리의 미라보다리. 그래서 세계적 다리들은 한 도시의 대표적 상징이다. 다리 자체가 훌륭한 관광명소다.

부산은 특히 해양도시 부산을 과시하듯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이 많다. 국내 최장의 복층 현수교 광안대교부터 북항대교-남항대교를 거쳐, 부산-경남을 이어주는 거가대교까지. 다리마다 뛰어난 예술적 조형미에, 독특한 바다풍경을 자랑한다. 광안대교 주탑 사이에 300m 가량 늘어뜨린 구름다리가 밤에 조명을 받으면, '인공구조물도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52.5㎞에 이르는 해안순환도로, 이 도로에 현수교광안대교-사장교북항대교 건설중-아치교-신호대교-경사교량(가덕대교-침매터널거가대교까지 다양한 다리가 있다. 이 거가대교가 명품교량으로 뜬다. 부산시는 북항대교-교량-복합교량-대교-철새전망대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 노후대교-변지점대, 해맞이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 발굴 등 특징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

## 세계적 체류형 복합레저 동부산관광단지 공정률 58%

국내최대 아울렛, 호텔,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골프장, 한옥마을 등 유치

2017년 완공예정인 동부산관광단지가 지난 2006년 관광단지 지정된 지 올해 9년째를 맞아 각종 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장군 기장을 대변리 일원 366만㎡에 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와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복합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해양레저 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상가시설에 롯데쇼핑이 국내 최대 규모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을 짓기로 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쇼핑은 10만㎡의 부지에 국내 최대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1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해 계약을 올해 1분기 안에 체결한다.

동부산의 상징 숙박시설이 될 랜드마크 호텔은 콘라드 힐튼 컨소시엄이 건립한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도시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7만여㎡의 부지에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는 이 호텔은 객실 500개와 콘도 120실로 구성된다. 이곳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투자대금을 포함해 총 2100억 원 규모다.

또 브랜드호텔에는 지역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 협약을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2011년 말에는 131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과학교원이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의 해양수족관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드스인베스트먼트사가 지하 2층 지상 4층 2만1000㎡ 규모의 수족관을 짓기로 현재 약확서를 제출한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부지도 현재 사업자와 협의를 펼치고 있어 동부산관광단지 대부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계획이 현실화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오는 2017년 그랜드 오픈을 할 때는 그동안 부산의 고민거리였던 동부산관광단지가 자랑거리로 거듭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 부산~제주 여객선 1년만에 부활

SK훼리, 4월 운항 목표 준비 중

부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해양청이 지난해 10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해 줬던 주에스케이훼리(주)가 오는 4월 부산-제주 여객선 운항을 추진 중이다.

주에스케이훼리는 현재 5천222여객정원 886명, 6천622여객정원 622명급 카페리선 두 척을 확보해 수리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는 두 척의 배를 각각 월·수·금·화·목·토요일에 운항해 데일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객선 운항 스케줄은 오후 7시 부산항 출발, 이튿날 오전 6시 제주항 도착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국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던 외항선 한 척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는데 지난 2010년부터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며 "국제협약 여객선 안전증서를 받는 방안을 비롯해 운항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에스케이훼리 측은 현재 홈페이지(www.skferry.co.kr)를 개설해 놓고 예약을 비롯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한편 부산-제주 배길은 지난해 5월 말 카페리선 코지아일랜드하천388호가 철수하면서 여객 수송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 연안여객 터미널 ~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여객선 운항 추진

오륙도, 태종대 일대 해상관광 기회 제공방안 마련

부산해양항만청은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영도구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을 잇는 여객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으로, 개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전국 각지에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영도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해양청은 부정기 여객선을 띄워 육상교통의 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는 해상관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해양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박물관 앞 수변공간을 개조해 임시 계류시설 건설에 나선다. 김영복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2억 원 인력의 예산을 들여 5월 이전에 접안시설을 만들 계획"이라며 "배를 타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아지면 영구 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양청은 조만간 공모를 통해 여객선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배에 유람선 기능을 추가해 박물관에 들렀다 나오면서 오

륙도나 태종대 일대를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구상 중이다. 오는 5월 어린이날 전에 여객선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배삐이 비싸면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KT와 연계해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편 연결을 통한 관광 상품 마련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덕 천성항 미래형 친수 관광기능 어항으로 변신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어항으로 승격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서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개발된 다대항, 대변항과 달리 천성항은 당시 없었던 환경, 해양이용, 공유수면 개발 등 관련법을 고루 고려해 체계적이고 현대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천성항에 있는 선착장 3곳이 전부다. 또 어선들이 배를 단 후 양륙, 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양장이 없고, 위판장 등의 수산 지원시설도 없다.

국가어항으로 승격된 가덕 천성항이 수산거점 기능은 물론 방재와 관광 기능을 가진 미래형 복합기능 어항으로 본격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국가어항 천성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착공,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가덕도 놀차항과 남쪽으로는 대항항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천성항은 부산과 경남 거제, 마산 통영 등을 잇는 해상 교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요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천성항에는 320m 구간에 물양장이 만들어지고, 어업지 도선 부두와 양륙부두도 조성된다. 양륙부두에는 자곡 수협의 위판장과 수산물기공시설, 냉동·냉장시설 등이 들어선다.

거대규모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친수 관광기능도 추가된다. 녹색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파고라, 벤치, 장자 등이 만들어진다. 또 바둑판수조와 산책로, 체육시설, 자전거보관장 등도 설치된다. 특히 673m에 이르는 친수호안에는 계단식으로 볼록을 쌓아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부산항 크루즈선 올해 156회 기항 전망

지난한해 733억원 경제적 효과, 올해 1천3억원 효과 기대

올해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항이 동북아시아 핵심 크루즈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한해 12만여명이 부산을 찾았으며 지난한해 부산항 크루즈선 기항 횟수는 모두 126차례, 올해는 156차례 15만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 24%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2만여 명에 이르는 부산항 크루즈 여행객 수도 내년에는 1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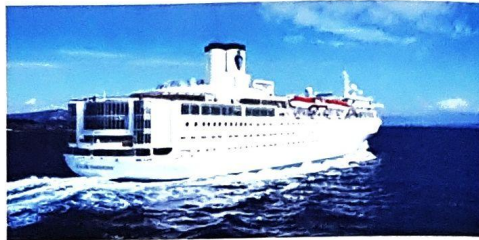
세계 2위 크루즈선사인 미국 로열캐리비안크루즈(RCL) 소속 크루즈선들은 모두 31차례 부산항에 입항한다. 지난해는 모두 19차례 부산항을 찾았다. 이 선사는 지난 7월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인 '보이저 오브 더 시즈' (14만급)를 부산항에 처음 보낸 데 이어 올해에는 같은 규모의 마리아 오브 더 시즈 (14만급)의 뱃머리도 부산항으로 돌아다.

이탈리아 코스타는 지금껏 빅토리아호(7만 5천급)만 부산항에 띄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규모가 더 큰 이틀란티카호(8만 5천급)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로써 지난해 11차례 부산항에 기항한 코스타는 올해 모두 22

차례 부산항 기항을 확정지었다. 미국 프린세스 크루즈는 디아몬드호 (11만급)를 포함해 모두 15차례 부산항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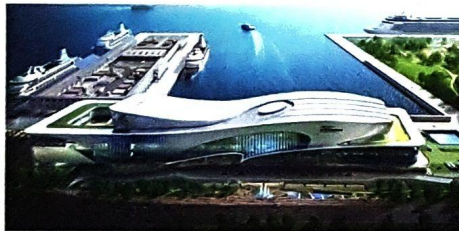
국적별로는 외국적 크루즈선이 96차례, 국적 크루즈선(클럽호니호)이 모두 60차례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 "외국적 크루즈선사는 1년 전에 미리 입항 계획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PA는 지난해 부산항 크루즈선 입항으로 모두 73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항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1천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북항재개발 지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566억원 사업비 들여 길이 718m의 국제여객부두와 360m 길이의 크루즈부두를 함께 축조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지역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북항 옛 3,4부두와 물양장 자리에 지어지는 신축 국제여객터미널은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은 99,2천345㎡에 이른다. 모두 2천3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14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열면 현재의 국제여객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로 기능이 바뀐다. 현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은 해양 관련 박물관 등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국제여객터미널 위치는 북항재개발 사

업 지역의 복합항만지구에 해당한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현재 BPA와 상부시설(지상건축물) 민간참여 사업자가 마련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상업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속도가 잠시 늦춰진 상태다. 하지만 공공 개발 지역인 복합항만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국제여객터미널 건축물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축조 공사는 지난해 이미 시작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모두 5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벽 길이 718m의 국제여객부두와 360m 길이의 크루즈부두를 함께 축조한다.

부산항에는 모두 4개의 국제여객 항로가 개설돼 있다. 모두 부산과 일본을 잇는 뱃길이다.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 쓰시마 사이의 뱃길을 카페리선과 쾌속여객선 등이 오가고 있다.

지금의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1978년 세워져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한 상태로 연간 이용객 30만 명을 기준으로 지어졌으나 현재 수용능력의 4배가 넘는 이용객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영도 갈맷길, 한국대표 해안누리길로 선정

관광자원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

부산 영도 갈맷길과 강남 고성 공룡화석지 해변길이 한국을 대표하는 해안누리길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52개 해안누리길 중 꼭 한 번 가볼 만한, 바다를 끼고 걷기 좋은 5개 대표노선으로 ▲영도갈맷길 ▲고성 공룡화석지 해변길 ▲인천 강화 호국문대길 ▲진북 보안 반산마실길(구간) ▲전남 신안 해남이 길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도 갈맷길은 절영해안로로, 기암절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다 태종대 유원지 내의 등대, 신선바위 등 다양한 절경이 특징이다.

고성 공룡화석지 해변길은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해변 입석의 공룡발자국 탐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 등 주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국토부는 해안누리길 5개 대표노선이 국민들이 자주 찾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유적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내판 정비 등 도보 관광객의 편의 제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부산항 관문 영도 주변 연안 시민 체험·휴식공간으로

부산항 관문인 영도 일대가 생태체험장과 해양레저·스포츠 공간 등이 어우러진 시민 체험·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규 실시설계사업으로 부산항의 관문인 영도지구 주변 연안을 해양 생태체험장, 해안 산책로, 해양레저·스포츠 공간 등 다양한 체험·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 영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기본설계비로 3억4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 친수 연안 조성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영도지구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들어서는 등 해양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영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영도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범위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이 정해지는대로 2014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영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는 친수구역 조성은 물론 침식구간 정비·복원, 시설물 보호 등

대책이 종합적으로 망라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안침식 방지 및 복원사업 대상으로 기존 시공사업인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및 해운대해수욕장, 울산 강동·주전지구를 비롯해 전국 14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내년도 예산으로 총 30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토부는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 대해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방파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사업비로 25억 원을 반영했다. 또 해운대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모래 유실 방지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343억 원을 들여 연면적 7만 1천 3백 900㎡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로 33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전국 유명 해수욕장 복원사업과 사업규모가 큰 연안 정비사업은 점차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적기에 정비·복원할 계획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 해운대 달맞이 언덕, 송정 일대 커피향으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기대

### 강릉 커피거리 버금가는 풍물거리로 조성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언덕과 송정 일대에 대대적인 커피거리가 조성된다. 해운대 달맞이 언덕 일대해월정-아외공영장은 현재 10여 곳의 커피 전문점이 있는 데다 커피 마니아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역 내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 구청은 해당 지역을 달맞이 언덕 오감만족커피거리(가칭)로 지정하고 향후 △커피거리 지정 조형물 설치 △달맞이 언덕 커피거리 지정 업소 현판 부착 △특화 업소 연구·개발 △커피축제·커피이카데미·커피 로스팅 체험·커피역사 투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대표와 휴게음식점협회 관계자, 관내 커피제조사, 학계(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발족한다.

이와 함께 구청은 커피거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송정 지역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송정에는 기존 37개의 원두 가공공장 외 2개의 신규 공장이 건립되는 등 부산에서 가장 많은 원두 가공업체가 집중해 있다. 또 광어굴구역도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가공 능력을 갖춘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입점을 추진 중이다.

송정지역에는 최근 2년 사이 엔젤리너스 등 7곳의 가맹 커피전문점과 블루커피코리아 등 8곳의 개인 커피전문점이 생겼고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가맹점들도 곧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커피 사업자들은 취향이 고급화되는 커피시장의 수요에 맞춰 커피 전문점들이 전문화와 차별화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송정 일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단순 추출 방식의 간편일물적인 커피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커피 가공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입지 조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송정은 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넓은 부지 등 독특한 커피문화 형성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커피축제가 열리는 강릉 커피거리에 버금가는 풍물거리가 달맞이 언덕과 광어굴 일대에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만지 객원기자

##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문열어

### 전망대 전체 투명유리 오륙도, 이기대, 광안대교 한눈에

오륙도 해맞이공원부터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총길이 770.9km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부산 남구 해맞이공원에 문을 열었다.

부산 남구청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부산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내소를 개소했다. 안내소는 정부의 동해안 탐방로 조성 계획에 따라 국·시비 11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0.43㎡(103평),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요시설로는 종합안내소 다목적실 휴게시설 전망대 등이 있으며 차량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됐다.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 2명이 상주해 외국관광객들에게 남구의 명소를 홍보한다. 남구는 또 안내소에 각종 관광정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망대 전체를 투명유리로 제작해 오륙도와 이기대, 광안대교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했다.

남구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역사와 명소가 소개된 ‘도보 여권’을 가지고 해파랑길 50개 구간에 만들어진 이른바 ‘간이역’을 통행하게 해 이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상품이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파도 색깔인 ‘파

랑’과 조사 ‘랑’을 합쳐 떠오르는 해와 푸른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소리를 벗삼아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동해안의 해변길과 숲길, 마늘길,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해파랑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까지 구간별 연결 공사를 마무리지를 예정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해파랑길 출발지인 해맞이공원 내에 완공된 관광안내소 전망대

## 기장 임랑 해수욕장 시골 어촌풍경 관광지로 개발

### 관광객들이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임랑해수욕장이 변신을 시골 어촌 풍경을 보존하면서 해수욕장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개발된다.

기장군은 임랑 출신인 고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기증금을 포함한 5218㎡ 규모의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장군은 공원 안에 박태준 기념관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현재 부지 확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간다.

기장군은 공원 조성과 연계해 해수욕장 일대 정비도 실시한다. 개발이 진행해도 해운대나 광안리해수욕장처럼 네온사인 불빛이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모델이 없는 시골 어촌 마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방침이다. 대신 나비 3m 남짓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선 단층 집을 단정해 민박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고즈넉한 시골 해수욕장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관광객들이 머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갈맷길 걷고 인증도 받고 부산시 내년 도보인증제 시행

### 부산 걷기명소 갈맷길 완주 인증시 기념품 제공

부산의 걷기명소인 갈맷길 완주 인증 받으면 단계별로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 갈맷길 도보인증제를 시행했다. 구간별로 인증대를 마련해 스탬프로 날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갈맷길 이용객의 흥미와 도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 트레킹 코스인 스페인 산티아고길 등에서도 도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인증대는 9개 코스(총 283.8km), 20개 구간별로 시작점과 중간점, 종점에 총 383개가 설치됐다. 여행자수첩을 들고 갈맷길을 걸으면서 스탬프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여행자수첩은 코스지도, 교통편, 주변관광지, 스탬프 찍는 곳, 완주 기록과 완주인증시 기록장 등으로 구성된다. 총 3만부가 제작돼 시·군·구, 갈맷길안내소, (사)걷고싶은 부산 등을 통해 무료 배포되고 있다. 완



주인증을 받으면 단계별로 기념품도 수령할 수 있다. (사)걷고싶은 부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스탬프 인증샷을 찍어 홈페이지(www.greenwalking.co.kr)에 게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1940년대로 복원시킨다

연안정비사업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지정, 백사장 40m에서 70m로 넓어져

부산해양환경청은 올해 66억원을 들여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15만~20만m<sup>3</sup>의 모래를 투입, 너비 70m로 확장 복원 시키기로 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는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사업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62만m<sup>3</sup>의 모래가 투입된다.

2015년말 모래 투입이 완료되면 길이 1천460m의 해운대해수욕장의 너비가 현재 40m에서 70m로 넓어진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이 1940년대로 복원되는 것이다.

해양환경청은 올 상반기에 시험삼아 일부 모래를 투입하고 해수욕장이 폐쇄되는 하반기에 추가로 모래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해양환경청과 해운대구는 모래를 투입하는 올해부터 백사장의 모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앞으로 3년간의 모래 변화를 분석한 뒤 미포와 동백섬에 각각 길이 200m 규모의 수중방파제침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잡제는 태풍 등 높은 파도로 백사장의 모래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운대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지정돼 국비 484억원과 시비 8억원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만지 객원기자



## 개장 100주년 송도해수욕장 한국관광기네스 등극

개장 100주년을 맞이하는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국내 해수욕장으로 유일하게 '한국관광기네스'에 최종 선정됐다. 부산 서구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한국관광기네스' 국민투표에서 송도해수욕장이 총 12개 명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한국관광 50년 역사에서 최초, 최다, 최장 등의 기록을 보유한 국내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명소 28곳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한국관광기네스'에는 송도해수욕장 외에 부산국제영화제,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국립공원, 남이섬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1913년 일본거류민들이 송도 유원주식회사를 설립해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으로 자리잡았다.

서구는 개장 100주년을 맞아 타임캡슐 매설, 송도 100년사 편찬, 다



이빙대와 구름다리 복원, 기념공원 조성 등 송도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총 43개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 동해와 남해 분기점은 해운대 달맞이언덕

해월정 인근 근린공원 4만7천m<sup>2</sup> 관광지로 지정, 보존키로

해운대 구청은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분기점인 달맞이 언덕을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광상품화 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달맞이 해월정 인근 근린공원 4만7천m<sup>2</sup>를 관광지로 추가 지정, 원형을 잃어가는 자연경관을 보존하기로 했다.

관광상품으로 상당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도 제주도 경계로 동북쪽을 동해와 서북쪽을 황해로 부를 뿐 남해와 동해에 대한 경계는 차이가 난다. 기상청은 행정편의 차원에서 부산시와 울산시의 해안경계점을 남해와 동해 경계로 보고 있다. 동해안 해안식재로 조성을 추진중인 문화관광부는 시작점을 남구 용호동 오목도로 잡았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월정 기준점의 경우 뱃길 등 수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나눈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동해와 남해를 구분 짓는 경계의 의미가 강하고 명확한 구분이 없는게 사실"며 "지역정서에 동떨어지거나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어 수로를 바탕으로 한 해역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모호하다 보니 해운대구청은 달맞이 언덕이 바다와 만나는 경계라는 것을 시민에게 더욱 각인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은 남해에, 송정 해수욕장은 동해에 속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이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해운대가 남해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해월정은 무난히 바다의 경계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송정 해수욕장 죽도공원 앞 등대가 영해기점이 된다.



▲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해월정

## 해운대 열다섯굽이 달맞이길 완공

해운대~송정입구 7.8km 구간, 정비 마무리 내달 준공식·걷기대회 등 개최

해운대 열다섯굽이 달맞이길이 착수 10여년만에 관광명소가 됐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송정 입구에 이르는 7.8km 구간 '십오굽이 달맞이길' 정비공사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이 투입됐다. 해운대구는 빗빛이 피는 오는 4월 정식 준공식을 갖고 대규모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달맞이 정비사업은 최근 해운교~송정 2.8km 구간 목재덱 도로 설치로 완료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에서 송정, 기장을 연결하는 관광루트가 완성됐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녹색길이 완전히 연결된 것이다. 문탠로드에는 야간 조명과 CO(폐쇄회로)TV까지 설치돼 야간 달빛을 받으며 산책을 할 수 있는 명소가 거듭됐다.

옛 한국콘도에서 해월정에 이르는 2.4km 구간은 목재덱 도로와 APEC 기념 해미루 정자가 설치됐다. 목재덱 도로가 시작하는 양쪽 지점과 해미루에는 보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 길 안내도 설치됐다.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안내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있다. 목재덱 로드 중간중간에는 길과 관련된 이야기와 시가 담긴 안내판 15개가 세워질 예정이다. 일제시대 굽졌던 열기장 아래 옛길 300m 복원도 추진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더욱 많은 관광객이 달맞이길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주차 공간 등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며 "달맞이길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달래는 차유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안대교 LED 조명 1만6000개 설치

### 부산 새로운 관광명물로 변신

부산 광안대교의 새 명물이 될 경관조명이 오는 8월이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올해 국비 22억 원 포함해 2011~2013년 3년간 총 56억2000만 원의 국비를 모두 확보해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의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광안대교 전 구간(7.4㎞)에 걸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1만16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LED 조명 제품 제작과 전기배관 공사 등 기초 시공에 힘을 쏟고 있으며 3월부터 조명 부착 공사에 들어가 6월까지 마무리한 뒤 시험운전을 거쳐 8월께,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충전연색 빛을 구현할

수 있는 LED등으로 시간대·요일·계절별로 화려한 경관쇼를 연출해 광안대교를 세계적인 아인경관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 해운대 앞바다 레저, 관광개발 사업 활기

부산해운대해수욕장을 시계절 해양레포츠 및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 만드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했던 미역양식장이 최종 보상을 끝으로 완전히 정비됐다.

부산시는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38억 원의 시비를 들여 해수욕장 앞바다 미역양식장에 대한 정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던 미역양식장은 40ha(2개소)의 규모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양식어업권은 미포어촌계와 우동어촌계 양식어

민들을 대표해 부산시수협이 갖고 있었다. 양식어업 허가권은 해운대 구에, 허가에 대한 승인권은 부산시에 있었다. 시가 미역양식장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미역양식장이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해운대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 대규모 미역양식장이 자리잡고 있어 시계절 해양레포츠 행사와 오프대회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 부산시, 마이스(MICE)산업 종합대책 마련

부산지역 마이스(MICE)회의 관광 국제회의의 전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행정의 전담 조직 축소로 정책의지가 후퇴하고 있어 마이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이스산업은 부산의 4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책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마이스산업 전담 부서인 전시간컨벤션과의 인원 확충은 물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망라된 자문회 구성을 했다"고 했다.

시는 △전시간컨벤션 인프라 확충 △전시간컨벤션 복합지구 조성 △지역

전시·컨벤션 기획사 육성 및 지원 △포상관광 유치 활성화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유망 전시컨벤션 육성 △도시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 10개 마이스산업 현안문제를 도출해 해결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 전문가와 부산관광공사 마이스실 실장, 대학교수 등 23명으로 구성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첫 회의를 갖는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시가 외형적 성장에 도취돼 마이스산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소홀히 해온 점이 있다"고 말했다.

## 부산 해운대 세계적 브랜드 특급호텔 설립 러쉬

### 세계적 명성 지닌 호텔 설립으로 관광시장 활성화 기대

파코하이트 호텔이 지난달 개관했다. 이어 힐튼호텔이 2015년 동부산관광단지에서 620실 규모 호텔신라가 2016년께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3300여 개 객실을 갖춘 호텔을 신축한다. 일본계 호텔법인인 세가사미 도 벅스코 인근에 300실 규모 특급호텔과 47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같은 해에 완성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도 신세계 센텀시티 주차장 공간에 특급 호텔 신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이공원인 미월드'의 호텔 전환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안리해수욕장지역에도 유명 특급호텔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수영구 민락도 미월드의 호텔 재개발사업 계획이 최근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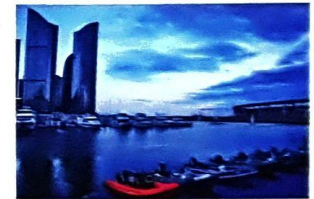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기존 특급호텔들은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노보텔엠베서더부산은 신규 업체의 마이스 기능 강화에 맞출 작전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 및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엠베서더 계열 호텔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또 리조트 중심의 마케팅을 꾀하는 호텔도 있다.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지난해 40억 원을 들여 노천 온천 공간을 마련하고, 레저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를 양성해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부산웨스틴조선호텔 역시 쇼핑 및 팸투어 기능 강화에 힘을 쏟고, 체험형 관광 전담팀도 별도 신설했다.

롯데호텔부산은 오는 9월 총 600억 원 규모의 객실 리노베이션 공사를 완료한다. 롯데호텔부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교육을 도입, 지역 명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후쿠오카 관측사무소와 연계한 한류 스타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0년 특1급 호텔로 승격된 호텔농심 역시 연내 대대적인 객실 리모델링 공사를 조만간 마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신규 호텔 오픈으로 비성수기 고객 쟁탈전이 치열할 것"이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호텔들의 잇따른 유입으로 부산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호텔 이용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호텔명	객실수	비고
부산지역 호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5287개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2907개	
노보텔엠베서더 부산	3297개	
해운대그랜드호텔	3207개	
호텔농심	2407개	
롯데호텔부산	6607개	
파코하이트부산	2997개	
힐튼호텔	6207개	2015년 개점
신라호텔부산	3307개	2016년 개점
세가사미호텔	7707개	
미월드	1407개	미정



## 샌즈 그룹 등 리조트업체 잇단 부산 투자 의향 밝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25만 명의 재개발을 통해 복합해안리조트로 변신을 꾀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운영업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부산 투자 의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은 23일 "지난 10일 글로벌 리조트 업체인 MGM 경영진이 국회를 찾아 부산에 3조~5조 원 규모의 투자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또 다른 세계적인 리조트업체인 샌즈(Sands) 그룹도 22일 국회를 방문, 대규모 부산지역 복합리조트 투자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비즈니스, 쇼핑, 레저,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집약해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21세기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정한 MICE 산업 중에서도 핵심이다.

샌즈 그룹은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고, MGM은 미국은 물론 마카오 등에 유명 리조트를 운영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다.

이 의원과 면담한 샌즈그룹의 글로벌 개발부문 조지 테레사(사) 회장은 2년 전부터 한국 투자를 준비해 왔으며, 샌즈그룹의 싱가포르 마라나베이 리조트 투자 규모인 5조 2천억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K-POP 등 한류라는 콘텐츠와 지역화합의 공간으로 포르모다 힐튼 같은 성공여건을 갖추고,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는 부산의 복합재개발 지역이나 동부산 관광단지 같은 대규모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최적지다."

## 마음 통하는 사람과 청송 '주산지'로 봄 여행을 떠나보자

200년생 능수버들과 왕버들 2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매우 아름다워



주산지는 조선 숙종 때인 1720년에 살기 시작하여 경종 때인 1721년에 완공되었다. 길이 100m, 너비 50m, 수심 7.8m이다. 한반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어서 저수지 아래의 이전의 마을에서는 해마다 호수 주변을 정리하고 동제를 지낸다.

주산지는 주산현 꼭대기 별바위에서부터 물이 계곡을 따라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뿜친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왕버들과 아우러져 별천지에 온 것 같이 한적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휴식을 취하기에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 저수지는 준공 이후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밀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 물속에는 약 200년생 능수버들과 왕버들 2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매우 아름다워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한 인간의 평범하지 않은 삶을 계절의 흐름과 불교의 윤회사상에 빚대어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로 구성된 영화로서 제41회 대중상 영화제에서 대상인 최우수 작품상, 2003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가을에 단풍이 물들면 용이 승천한다는 주왕산 별바위가 왼편에서 지켜보고 있고, 피란 하늘과 울창한 숲의 주산지 경치는 그야말로 자연만이 만들어낸 수면 위로 튀어 오르며 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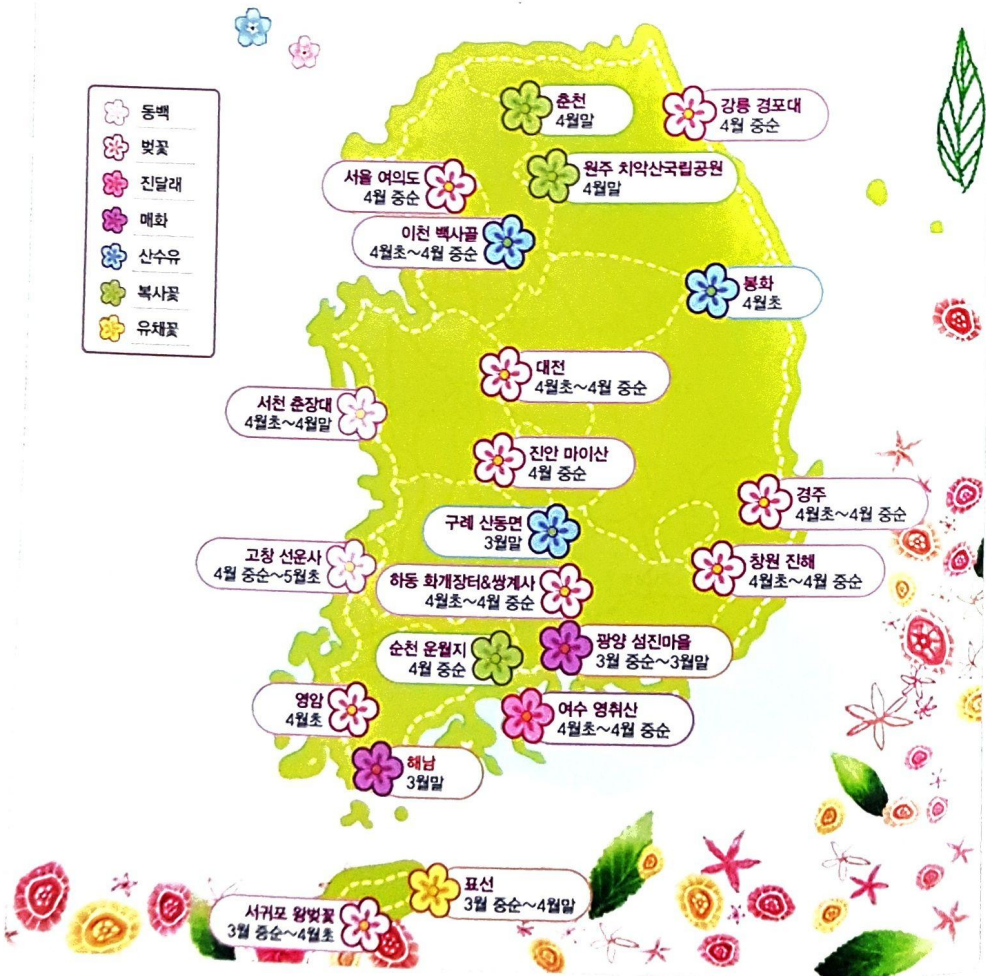
덕거리는 물고기와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떠돌아다니는 소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평화로움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주산지에 있노라 면 세상살이는 잠시 잊게 되고 산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도 모른다. 문화재청에서는 최근의 경기도 포천의 한탄강 영우의 협곡과 더불어 주산지 일원을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기도 했다.

휴일에 시간이 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청송 주산지로 겨울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주산지를 둘러본 뒤에 달기약수터, 절골계곡 등을 찾아 본다면 나무랄데 없는 멋진 겨울 추억을 연출할 수 있다. <편집실>

# 봄꽃 따라 떠나는 나들이

굉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봄꽃보고 바람쏘고!

봄은 역시 꽃이다. 이름도 알미운 '꽃샘추위'의 질투만 이겨내면 진짜 봄이 시작된다. 한반도 대표 '봄의 전령(傳令)'을 따라가 보자. 찬바람 품은 동백(冬栂)은 물론 심진강변을 새하얗게 물들이는 매화며 벚꽃이 아련한 봄날의 시작이자 정점을 알린다. 산수유꽃의 선명한 노란색이 반가운 지금, 드디어 봄이 왔다. 봄꽃 구경은 물론 봄꽃 피어내는 주변 구경까지 더해보자. 실랑, 봄바람이 반갑다고 속삭인다.





## 꽃구경을 하고 싶다면 전남 순천으로...

### 전남순천 선암사 봄꽃,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가다

#### ◇ 선암사

조계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선암사에는 오래된 꽃나무가 많다. 이른 봄부터 등백, 매화, 산수유, 진달래, 수양벚나무, 겹벚꽃, 영산홍이 차례대로 피어나 꽃 대궐을 이룬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선암매'라 불리는 매화이다. 대체로 4월 10일 전후에 만개한다. 매화가 진 뒤에도 선암사의 봄은 아름답다. 수양벚꽃, 겹벚꽃 등이 연달아 피고 진다. 선암사 꽃길은 매야소를 지나면서 시작된다. 4월 초순이면 활엽수 우거진 숲길 양쪽에 연분홍 진달래가 만발한다. 부도밭과 나무 정승 앞을 지나면 무지개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보인다. 승선교는 이름처럼 신선이 옷자락을 휘날리며 날아오르는 듯 우아하다. 강선루와 일주문을 지나 선암사 경내에 들어선다. 무우전과 팔상전 주변에는 토종 매화 20여 그루가 모여 있다. 대부분 수령 400년 이상 고목이다. 기품이 넘치고 향도 짙은 선암사의 매화나무는 특별히 '선암매(仙巖梅)'라 부른다. 원통진 담장 옆에 홀로 서 있는 백매화와 무우전 돌담 옆 흥애하는 천연기념물제48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무우전 돌담 아래에는 백매, 청매, 홍매가 줄지어 늘어져 있다. 일정한 높이 없이 자연스럽게 쌓은 돌담이 제멋대로 뒤틀린 선암매의 줄기와 닮은 듯하다. 담장을 덮은 검은 기와와 이끼가 진득 끈 나무껍질도 서로 닮았다.

선암사에는 장경각 옆 산수유나무와 앵두나무, 적목당 앞 연못가에 있는 처진울벚나무(수양벚나무)도 꽃을 피워 울러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선암사 정무소 061-754-5247

#### ◇ 낙안읍성 민속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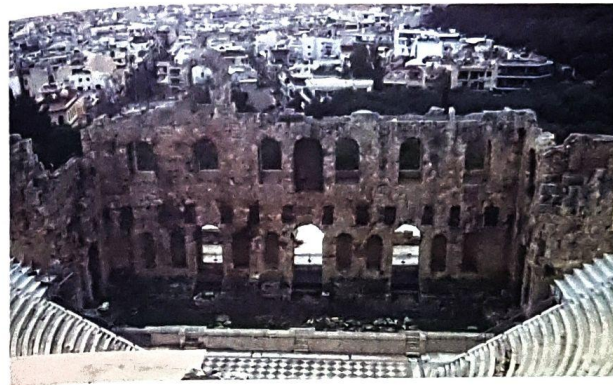
낙안읍성은 조선 태조 때 축조된 성곽이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조선 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주민들은 조선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초가집에서 산다. 둥근 성곽 안에 초가집이 울망졸망 모여 있는 모습이 바구니 안에 표고버섯을 가득 담아놓은 듯하다. 돌담장을 끼고 고갈길을 걷다 보면 머리를 꼭 짰 외할머니가 사립문을 열고 나와 반겨줄 것 같다. 집마다 마당에 삼구꽃 · 명자꽃 · 앵두꽃 · 산수유 · 벚꽃 · 자두꽃 · 매화 등 꽃나무를 심었다. 돌담 아래에는 민들레와 유채꽃이 찻뜨르 줄 맞춰 늘어섰다. 온 마을이 울긋불긋한 꽃 대궐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가집붕에 들꽃 화환을 걸아놓은 것처럼 소박한 정취가 느껴진다.

마을 풍경은 사극 속 한 장면처럼 고풍스럽고 향토적이다. 민가의 처마 아래에는 갖가지 농기구와 키, 광주리 등이 매달려 있다. 마당에는 딸감과 짚단이 쌓여 있다. 벌 좋은 담벼락 아래엔 장독대가 놓여 있고, 아궁이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사립문은 대부분 열려 있고, 그 사이로 얼굴을 내민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길손들을 반겨준다. 집 앞 텃밭에는 닭과 병아리들이 모이를 찢고, 황소는 나른한 봄볕에 졸음을 쫓으며 눈을 깜빡인다. 주민들은 농사짓고 민박을 치며 살림을 꾸려간다. 이 마을 초가에서 허룻밤 묵어보는 것도 여행의 색다른 재미이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성벽 길을 따라서 산책하면 생강 냄새처럼 알싸한 아침 공기가 머릿속까지 맑게 해준다.



선암사에서 낙안읍성으로 가는 도중에는 상사호 호반길을 지나는데, 만개한 벚꽃 가로수길이 볼만하다. 호반길과 울치재를 지나서 금전산 중턱 오공재를 넘어서면 금둔사 입구에 다다른다. 낙안읍성과 낙안 들녘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중턱에 자리 잡은 금둔사(061-755-3809)는 우리나라에서 흥매화(납매화)가 가장 빨리 핀다는 곳이다. 4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겹벚꽃도 볼만하다. 백제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금둔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보물945호)과 금둔사지석 불비상(보물946호)도 있다.



#### ▲ 이로도아티코스 음악당

아크로 폴리스에 남쪽에 위치한 이로도아티코스음악당 조수미가 음악비디오를 찍었다는 음악당으로 오늘날까지 연극, 오페라가 상영되는 공연 시설이다. 반경 38m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높이 28미터로 웅장하다. 아티카 사람 herodes가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장시간 비행으로 무릎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견내하며, 거의 15시간 만에 도착한 낯선 이국땅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풍경들이 나의 정숙한 정신 세계를 깨뜨릴 만큼 싱겁하고 싱겁다. 그리스의 오렌지 가로수와 동화책에서나 본 듯한 담백한 벽돌색 지붕과 영혼마저 잠들게 할 것 같은 하얀 석회색 벽돌, 싱싱하고 신선한 너무나 맛있는 유기농 과일들,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고대 유적들의 신선함이 가슴을 마구 뛰게 한다. 그리스와 터키어인들은 바쁘게, 빠르게 빨리를 외치는 우리나라보다 기다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 여유와 낭만을 추구하며 즐길 줄 아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1달 이상을 기다려도, 공항에서 비행이 연착하여 티켓팅이 늦어도 아무도 아우성치지 않는다. 전기가 비싸서 일몰 이후에도 가정집에 불이 켜지지 않으며, 엘리베이터도 2사람과 캐리어를 싣고 나면 딱 찰 정도의 크기이다. 절박이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을 즐기는 낭만과 여유를 미다하지 않는다.

그리스 아테네는 우리 나라 언론 보도와는 달리 질서있고 조용하게 이방인을 맞이한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크로 폴리스는 하얀 대리석이 붉은 벽돌색을 띤 정도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세계문화유산(번호 46)의 대리석 석주로 이루어진 파르테논 신전이 위풍당당 귀품있게 자리하고 있다.

## 아! 그리스·터키어!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한 것이고 내안의 자아와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김남희 여행칼럼리스트, 그리스·터키를 가다.



여행칼럼리스트  
김 남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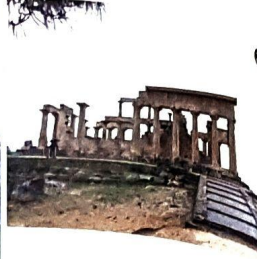
아테네 문화의 상징인 디오니소스원형극장과 나체신전 헤르미온네 신전으로 유명한 에릭티온 신전이 낯선 문화유산에 대한 이질감에서 오는 흥분감을 준다. 특히 조수미가 음악 비디옷를 찍었던 이로도아티코스 음악당은 아직도 예술의 천이 살아 현재에도 음악인들이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에릭티온 신전은 아테나 아들 에릭티우스를 숨겨준 곳으로 신전 옆에는 아테나가 심었다는 올리브나무가 상징처럼 심어져 있다. 아테네는 그리스에 유일한 나무를 심은 '아테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아테나의 눈은 터키어에서 '나치르폰지' 신의 눈으로 환안을 주고 보을 물리친다는 부작으로 사생활 정도로 기원품 가져와 달한다.

그리스의 침침으로 익은 '수박'이라는 작은 프로그래밍 신상들이 주기에 충분해진 입맛에 꼭 맞는 식사와 여행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충분하다. 수박이라는 과일과 과일, 그리고 수박의 맛과 향을 느끼고 소금감을 하여 맛있게 구워 그리스에 맛있게 먹는다.

그리스에서 만난 예게해 바다는 예제랄드 빛 물감으로 그 많디 많은 물빛을 흉내내지 못할 만큼 맑아 내 영혼을 비추는 듯하다. 차가운 구름이 차가워 내지 못할 만큼 맑아 내 영혼을 비추는 듯하다. 그리스 중산층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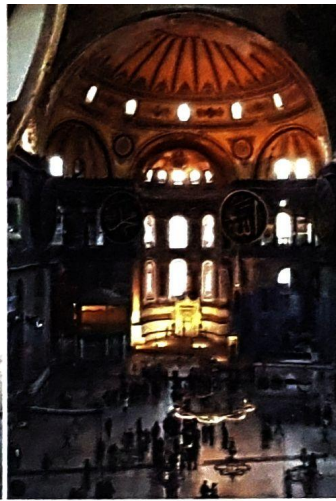




1 에릭티온 신전  
2 블루 소크르 사원앞  
3 에기나섬 아페아신전



4 카파토키아의 피사바계곡  
5 그리스 에기나섬 항구  
6 파묵칼레의 목화의 성  
7 아아소피아사원



터어키는 나라의 전체가 세계 문화 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해 50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고대 유적이 넘쳐나는 관광도시이며, 터어키의 이스탄불에는 볼거리가 많아 여행의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성서로운 지혜의 뜻을 지닌 아아소피아사원은 비잔틴 양식으로 아치와 돔형태의 건축물이다. 유스티니아 황제가 니카반란으로 인한 민심을 잡기 위해 세워졌으며, 십자군의 침입으로 천장의 금장장식은 석회석으로 덧발라져 퇴색되고 빛바래졌지만, 씨프러스 문양이 새겨진 화려하고 섬세한 기둥들과 천정에 아름답게 새겨진 화려한 문양과 천장을 장식한 가브리엘과 니카엘은 천사의 날개짓은 아직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듯 생생하다. 벽에는 예수와 마리아, 황제들의 모자이크도 살아 뛰어 나올 것 같은 정교한 모자이크가 넘친다. 천장 가득 장식된 상들리에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건물 전체의 화려함과 웅장한 모습의 극치를 이룬다.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품을 보는 것 같은 황홀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돛카프 궁전은 오스만 투르크 황제들이 살던 궁전으로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세모 모양을 한 씨프러스 나무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선물방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 할 정도로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칼, 툄대, 가구, 시계, 보석으로 휘감은 듯한 갑옷들의 화려함과 섬세함에 눈을 떼지 못한다. 보석방에는 눈에 담기조차 어려운 보석들이 즐비하다. 그 시대의 화려한 문화의 찬란함과 정교하고 섬세한 장인들의 솜씨에 고개 숙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스크 내벽이 푸른 색으로 바탕으로 한 풀잎 무늬의 타일로 덮여 있어 블루소크라 불리는 이슬람사원은 온몸을 감싸는 종교적 신비감과 숨을 죽일 정도의 아름다움과 황홀감

이 느껴지는 곳이다. 마흐멧에게 빨리 돌아가기 위해 24시간 내에 장례식을 치르는 의식은 마흐멧의 절대적 신에 대한 경외심이다. 국제 시장같은 재래시장 그랜드 바자르에서 사이의 세계적 열풍을 온 몸으로 체험한다. 한국인임을 알면, 사이 사이를 외치며 말춤을 추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우호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동서양을 잇는 보스포루스해협을 건너 피에르 롯데닷컴을 찾는다. 프랑스 군인 피에르 롯데와 터어키 유부녀 아지아데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피에르 롯데 찻집의 정취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석양의 빛을 받아 금빛으로 물든 골든 홀과 인공섬과 같은 섬을 휘감은 바다와 다리가 어우러져 슬픈 전설은 아름다움이란 명원함으로 아직도 남아 터어키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따뜻한 차와 홍차로 몸을 녹이며, 세월이 흘러도 사랑의 향기는 변하지 않았음을, 그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의 체온이 있음에 감동한다.

에자바트에서 ferry를 타고 다르다닐스 해협을 건너 차나칼레에서 하산, 버스를 타고 거의 8시간만에 일리아드 오딧세이 신화의 도시 트로이에 도착한다. 100년이 넘는 발굴로 작업의 성과를 인정 받아 196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기록된 트로이는 트로이 성벽과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다. 경사지에 축조되어 거의 2000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요새이며, 이곳에는 이질레스를 제사치냈던 아테나신전터와, 오디오의 기원이 된 오데온 소극장을 볼 수 있다. 공명장치로 마이크가 없어도 많은 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지어졌다. 트로이의 신화만을 믿고 트로이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하이네슈리만과 그의 아내의 인내와 끊임없는 집념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기독교 중심지였던 에페소는 성경책임을 보고 발굴된 도시이다.

로마시대의 유물들이 보석처럼 즐비하고 눈을 어디에 먼저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즐거운 곳이다. 24000명을 수용했다는 어마 어마한 크기의 반원형경기장과 물을 데워 썼다는 고대 목욕탕, 아시아 총독이었던 셀수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셀수스도서관, 무시 무시한 뱀머리를 한 메두사 조각과 행운을 준다는 니케여신을 기둥 위에 새긴 하드리아누스신전, 클레오파트라가 거닐었던 명품거리인 금과 청동으로 장식되었던 로마시대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미세한 조각들로 잘 맞추어진 아름다운 퍼즐 그림같다. 가장 보존이 잘 된 쾌레트거리는 수없이 세워진 기둥 수만큼이나 감탄이 새어 나오게 한다. 니케여신상은 행운을 준다는 속설로 가슴이 많이 덮은 채 미소지으며 날개짓을 하고, 길거리 보호신 헤르메스상의 성기는 애가를 날게 해 달라는 소망으로 가늘어져 부러지고 말았다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간직하고 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shamanism같은 미신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인 것 같다.

히에라 폴리스라고 불리는 목화의 성 파묵칼레에서는 자연이 만든 하얀 석회봉 노천에서 족욕을 즐길 수 있다. 종종 형식의 계단 석회봉 온천아래의 풍경은 열은 코발트 블루색을 담은 호수와 벽돌색으로 단정함 이따금 지붕들의 집들로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도시 안탈라스는 현대와 옛날이 공존하며, 조용히 흐르는 냇물처럼 복잡해 하지 않으며, 아기자기하게 고유의 모습을 간직한 소박한 구시가지가 너무 정겹다. 후미진 골목마다 퇴색된 대리석 바닥이 사면을 간직하며 온 몸을 따스하게 녹인다. CENDER HOTEL 숙소에서 유리를 통해 파고드는 지중해 바다풍경이 일품이다. 햇살을 쬐으며 물에 반사된 빛까지 더해 바다는 환상 그 자체다.

거의 8시간이던 긴 여행의 노곤함을 달래 듯 비와 눈과 따스한 햇빛

으로 번덕이 죽끓듯 하는 날씨와 창우지개로 보답을 받으며 울호양이 바람과 물에 부식되어 수 천개의 피라밋 형태의 장난을 이르고 있는 카파토키아로 향한다.

이른 새벽 열기구를 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붉다 붉은 구름과 북쪽 뼈죽 솟은 피라밋 바위 사이로 태양이 불덩어리 같은 알들을 내린다. 오늘날만큼 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이 아니다. 내 안에 숨겨져 가슴에 인기는 벽창이다. 태양과 하나가 되는 착각마저 든다. 휘황하다는 편견을 깨고, 조금도 후회없는 편안한 비행이다. 환상적일지, 신성할지라는 영감으로 영혼마저 아름답게 된다. 신이 만든 자연의 비경과 아름다움에 놀라고, 내 자신이 정화되는 느낌에 감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바위를 파서 집과 교회를 만들어 형성되었다던 유적이 남아 있는 괴레메계곡과 수많은 비둘기 집으로 유명한 우치히스르는 아드르의 시초가 된다. 스머프 배경이 되기도 했던 세공들이 보았으면 다사다계곡,가득고 박해를 피해 건설되었던 지하도시 모린쿠오와 신양인의 빈곤과 비참한 지친 삶을 아드르지만 그들의 편안한 삶과 신을 닮아 끈 신에 대한 대단한 믿음과 용기에 감동받는다.

우리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 문화 유산을 보고 부러워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유적이 파괴되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적이 안타깝게 되었다. 우리의 것이 세계로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문화 유산도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다. 멀고 먼 유럽 여행이었지만, 제 기억에 살아 남아 가슴과 정신에 온전히 투영되어 자신을 반성하고 느낌의 미학이란 철학적 논제를 재검해 주는 보람된 여행이었다. 내 인생, 시간과 돈, 삶과 죽음이 신성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감사한다.

# 크루즈 · MICE · 의료가 세계관광 키워드다

CRUISE MICE MEDICAL TOUR

한국 관광산업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분야 중에서도 크루즈,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의료관광은 양적 성장에 비해 그 질적인 향상은 더디다는 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다. 해외의 성공적인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을 살펴본다.



##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 준비 필요

관광산업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이동과 현저에서의 경험, 문화제 관람 등 관광의 기본적인 요소를 넘어 관광업계 외부의 것들과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크루즈, MICE, 의료 분야가 있다. 한국은 ▲중국 등 풍부한 배후시장 ▲3면이 바다 ▲우수한 의료 기술 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광산업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비교적 미약했다. 크루즈의 경우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가 제주도 북항을 제외하고 육지 쪽에는 부족한 상태다. MICE도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관광은 전문분야와 관광이 접목돼야 하는 관계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루즈, MICE, 의료 등 선진적인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적이 늦은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크루즈는 크루즈 터미널 등 하드웨어 구축, 의료관광은 여행사, 가이드들의 전문 지식 습득, MICE는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크루즈 싱가포르 22만톤급 정박 가능

크루즈 산업은 미주와 유럽이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행 인구 폭증과 고급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 유수의 선사들은 이미 아시아를 제3의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싱가포르 크루즈 센터(Singapore Cruise Center)의 설립연도와 봐도 싱가포르가 오래전부터 크루즈를 유력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관광청 이재욱 부소장 "싱가포르 정부는 크루즈를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키워 왔다"며 "대형 선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아시아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싱가포르는 저타공인 동남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가 됐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22만톤급 오아시스-호)이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 부두가 마리나베이센즈에 들어섰다.

이는 싱가포르가 ▲수많은 유동인구 창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크루즈의 모항이 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마리나베이센즈의 크루즈 항구는 3만 평방미터 규모에 1억달러가 투자된 크루즈 전용 부두이다.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코스타크루즈, 스타크루즈 등 세계적인 선사의 크루즈 선박들은 이미 싱가포르를 허브로 두고 있다. 많은 크루즈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의 크루즈 인프라를 높게 평가한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사무소의 이재명 대표는 "한국에는 없는 대형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2곳이나 있는 것만 봐도 크루즈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 준다"며 동남아 항공 허브인 창이공항과 크루즈 선사가 함께 협력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크루즈는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말했다.

## 마이싱 홍콩 홍콩을 기억하게 만드는 소품

2011년 MICE 행사 참석을 위해 홍콩을 찾은 외국인인 대략 156만명, 2009년 117만명 정도에서 3년만에 40만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홍콩은 꾸준히 MICE산업 부문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MICE산업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준비했기 때문이다. 우선 인프라 확충이 눈에 띈다. 지난 1998년에 문을 연 홍콩컨벤션전시센터(KCEC)를 시작으로 2005년에 개장한 아시아월드-엑스포, 카울룬베이 국제무역센터 등 대형 행사장이 꾸준히 건설됐다. 여기에 2012년 기준, 222개 호텔, 7만여 객실이 준비되어 있고 허버시티, 센트럴 FCO 등 MICE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도 많다. 게다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케세이페시 피항공 등도 MICE 발전에 원동력이 됐다. 눈여겨 볼 점은 무궁무진한 배후 시장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은 물론 13억 명 인구의 중국이 비행거리 4시간 이내에 있다. 정보의 지원도 남다르다. 2009년 11월, 홍콩관광청 내 MICE유치와 지원을 위한 본부(ME+K)를 설치해 MICE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홍콩정보의 MICE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홍콩정보의 MICE 지원체계는 외연을 넓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홍콩관광청은 인센티브 행사 등 MICE 행사를 유치할 때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현금지급을 통해서는 홍콩의 문화, 홍콩의 매력을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콩관광청 이주승 MICE 담당 차장은 "오히려 (MICE 목적의 방문객들에게) 홍콩을 연상케 하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전통 공연인 사자춤을 시연한다"며 이를 통해 홍콩의 문화를 전할 뿐 아니라 참가자들의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메디컬 투어 태국 '힐링=관광' 이미 등식 성립

영국 BBC방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를 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서양의 여행객 중 80% 이상이 태국, 싱가포르, 인도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저렴한 의료비용과 수준 높은 의료 시설, 경쟁력 있는 호텔 오음 등 덕에 태국을 가장 많이 찾는다. 태국 의료관광의 발전 동력은 우수한 의료 인력은 태국 외조와 관련이 있다. 1982년에 태어나 1999년에 서양한 마히돌(Mahidol)대학자가 미국 하버드 출신의 내과 의사였고, 그 이후의 왕족들도 의료 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독일, 일본, 미국 등으로 태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유학을 떠났고 고급 의료기술을 습득했다. 또한 태국은 삼입 병원이 발전하기도 했다. 태국의 대표적인 삼입 병원의 범랑국 국제 병원은 1990년대 중반, 투자 유치를 통해 병동 확대, 최신 장비 도입 등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시설과 인적 자원을 갖췄다. 특히 2002년 동남아 지역에서 최초로 JCI 인증을 받아 대외적으로 신뢰를 높이기도 했다. 2002년 태국의 JCI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의 연세의료원이 2007년에 JCI 인증을 받은 것보다 무려 5년 빠른 것이다. 태국은 마사지, 스파, 휴양, 미용, 건강도 의료관광의 범주에 두고 있다. 태국관광청은 2012년 9월 진행했던 미디어를 배우어에서 태국의 마사지, 힐링리조트, 미용 시설 등 발전한 의료관광을 보여준 바 있다.

손해국 편집위원

# 국내·외 여행 표준약관

## 국외여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승인 약관)(下)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00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안전 및 안내문 발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기간 화합도도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회여행: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회방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 제4조(계약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또는 여행 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자 제공 서비스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음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때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때 여행업자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제9조(초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인 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행자에게 페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 계약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회방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드 등 송영서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요금
- 국내외 공항·항만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정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회방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뒤이

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3조(여행조건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집지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의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행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만 여행자에게 페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일까지 퇴원한 경우
  - 간염 등 1급 및 2급 감염병에 걸린 경우
  - 2차 이상 입원한 경우
  -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일까지 퇴원한 경우
  - 간염 등 1급 및 2급 감염병에 걸린 경우
  - 2차 이상 입원한 경우

여행업자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여 어렵고 인정될 경우

###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 때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의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할 때 국경선을 벗어난 시점으로 합니다. 단, 국경선을 상륙내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출발지로서 사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 제18조(살인죄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상적 영외지역에 있는 주요한 유물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에게 보합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여행업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② 운송수단 이외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여행약관의 내용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산, MICE산업 기지화해야

손해식 본지 편집위원, 동아대 명예교수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서 무서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급성장 컨벤션도시' 세계 3위에 올랐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2년도 부산에서 개최된 MICE관련행사 개최실적은 모두 8,574건으로 2011년의 3,710건에 비해 무려 131%나 성장했다. 부산은 2011년 서울(3,576건)을 제치고 국내 1위의 MICE도시로 부상한데 이어 작년에도 선두자리를 고수하게 되었다.

### • 부산 2011년 - 2012년 한국 최고의 MICE 실적 자랑

MICE산업이란,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travel(포상관광), Convention(대형회의), Exhibition&Event(전시 및 이벤트)를 포괄하는 산업을 뜻한다. 좁은 의미의 전시·컨벤션에 전시컨벤션방문객들의 관광까지 묶은 보다 넓은 개념의 용어이다.

부산이 서울을 앞질러 국내 최고 MICE도시로 올라선 것은 BEXCO와 함께 부산지역 호텔, 대학 등에도 컨벤션 및 전시 행사 개최지로서 다양화되고, 부산시 또한 MICE산업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을 편 결과다. 부산시는 관광컨벤션 산업을 4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의 MICE산업은 무엇보다 그 외형적 성장에 힘 입은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MICE산업의 대표적 인프라인 해운대 BEXCO는 작년 6월 오디토리움과 제2전시장 등 시설확충을 통해 국제회의와 전시, 문화예술행사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4,200석 규모의 다목적 컨벤션시설을 확보 함으로써 기존 전시관보다 배이상 큰 연면적 21만 3천 849㎡에 달하는 시설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 • 부산시의 4대 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집중지원

거기다가 특급, 비즈니스호텔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의 파라다이스호텔(530실), 노보텔(325실), 그랜드 호텔(320실), 조선펀처호텔(290실) 등 기존의 특급 호텔 외에도 최근에 개관한 특급 파크하얏트호텔(269실)을 비롯해 세기사미 부산 물안(300실), 세기사미 부산 이비스(470실)등 대형 호텔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해운대 관광리조트 내에 신라호텔(296실)과 해운대역 근처에 비즈니스 신라 스테이(360실) 등이 2016년 말까지 오픈할 예정이며, 수영만 요트 경기장과 광안리 마일드에도 각각 특급(580실)과 비즈니스호텔(320실) 건립사업

이 추진중이어서 2016년 말까지 최소 3,000개의 객실이 추가로 생겨나게 된다. 이와같은 인프라 확충에 따라 부산의 MICE 행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MICE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물론 내실있는 행사의 기획과 관리 분야에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부산관광 컨벤션뷰로와 BEXCO위주로 MICE행사를 유지하고 주관하던데서 부산관광공사와 BEXCO가 행사장 대여 및 관리 위주의 수동적 경영방식으로부터 탈피해 민간전시기획사(PEO)와 컨벤션기획사(PCO) 중심으로 경영관리하는 형태로 일대 전환기를 맞아 들어야만 한다.

### • 대형 관광호텔과 BEXCO에 다목적 컨벤션 시설 확보

그리고 부산의 MICE산업이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려면 부산이 갖는 도시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존의 MICE관련 시설들의 집중도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만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MICE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해운대지역과 김해공항, 중앙동의 국제여객부두, 부산역·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간의 연계 수송망을 보다 편리화하고 신속화해야한다. 그 밖에도 호텔 인접지역에 대형쇼핑시설과 면세점을 확충하고 해양성관광자원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함께 해외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가덕도 해상신공항의 건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부산이 한국의 MICE산업의 기지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산관광공사 출범”에 즈음하여

부산관광의 국제화는 당면과제이다. 보다 많은 외국관광객과 방문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 갈수 있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관광산업구조 및 인프라 개선사업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난 6년여간 지역사회 많은 관광전문가들의 지원과 염원을 담아 작년 11월 15일 부산관광공사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 점을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결목 할 만한 부산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부산관광공사 설립이라는 쉽지 않은 정책적 결정을 해 주신 부산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광관련 공무원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미래지향적 판단과 지원에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경쟁 지자체에 비해 늦은 출발...

공사출범이 되었다고 안도하기에는 사실 부산관광공사는 출발이 경기도(2002년)나 제주도(2008년) 같은 다른 주요 지방관광공사에 비하여 6~10년 정도 뒤늦은 감이 있어 앞으로 손익을 아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출범초기의 신중한 문제...

조직의 안정화, 예산확보 그리고 사업추진의 독자성 확보 등 출범초기의 신중한 문제가 많이 놓여있어 갈길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 이다. 공사의 안정적 출발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측에서는 하루빨리 부산시로부터의 예산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관광수익사업 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관광의 국제화 및 인프라 개선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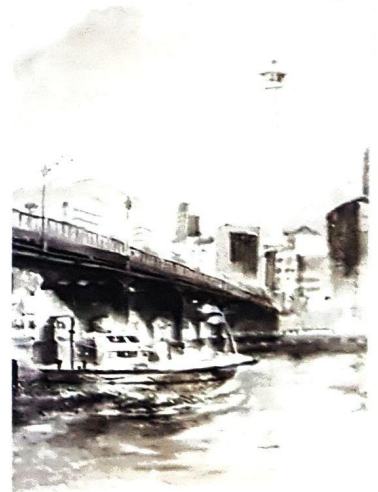
부산관광의 국제화는 당면과제이다. 보다 많은 외국관광객과 방문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 갈수 있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관광산업구조 및 인프라 개선사업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도 앞장서야...

최근 공개채용에 257대 1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률이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는 청년일자리란 현주소를 알려주는 단면이라 생각되어 마음이 몹시 무겁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광분야 일자리가 이만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는 증거이기도 하다. 앞으로 부산관광공사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동아대학교  
임상택 교수



H · O · T · E · L · A · Q · U · A · P · A · L · A · C · E

www.aquapalace.co.kr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온천호텔

「호텔아쿠아펠리스」

창사 6주년

「호텔아쿠아펠리스」는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온천호텔로 38℃ 천연 암반 심해온천수가 사용된 워터 테마파크입니다.



- |                         |                              |
|-------------------------|------------------------------|
| 21F 스키야 간양대             | 5F 온천 사우나                    |
| 19~20F 스키야 라운지, 스키야 노래방 | 4F 휘트니스 클럽                   |
| 10~18F 객 실              | 3F 중연회장, 유흥주점                |
| 7~9F 워터파크               | 2F 일식당, 웨딩홀, 대연회장, 소연회장, 프론트 |
| 8~9F 핑클룸                | 1F 프리미엄 생맥주전문점, 커피숍          |
| 7F 아쿠아로빅, 수영장           | 81 노래주점                      |
| 6F 골프클럽/인도어, 스크린        |                              |
- \* 프리미엄 생맥주 전문점 오픈 이벤트 진행중

낭만이 깃든 초록빛 내음 가득한 그곳에 「호텔아쿠아펠리스」가 있습니다.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92-5 T. 051)756-0202 F. 051)790-2366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셴양, 우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기타큐슈, 쿠이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기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2011년 대한민국 명장  
'(주)덕화푸드 대표이사 장석준'의

청주로 빚어낸 저염명란



청주로 빚어낸 저염명란은  
4% 염도의 짜지않은 명란으로  
청주로 맛을 내, 비리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www.dhfood.kr  
덕화푸드 고객센터 051-265-8163



# 부산타워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타워**는 우리 민족의 창의적 우수성을 입증한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항구를 상징하는 동대모양의 형상으로  
해발 189m, 지상 120m의 타워로써 1973년에 10월에 준공되었으며,  
팔각정에는 세계민속악기박물관과 타워1층엔 갤러리로서  
관광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번지 용두산공원 내  
<http://www.busantower.org>



## 新외식문화 - 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이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는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를 일품입니다.  
 향시 5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3F 노래찾는사람들	2F 日式 가자	1F GUESS WHO?	3F Song of Joy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1F 맛보로하루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